

# “지역 감정? 그런 거 몰라요”

## 제6회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개최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이 7월 18~19일 부산에서 열렸다. 영·호남 청소년 간 교류를 통해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현장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부터 6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다.

(사)맑고향기롭게(회장 박수관)와 부산문화방송이 주최하고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신라대학교가 특별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영남지역 부산고교 120명, 호남지역 영주고교 120명을 비롯 총 240명의 청소년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수관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어울림 한마당은 서로의 풍습과 살아있는 문화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청소년들은 마음을 터놓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용근 부산광역시 교육감도 “매년 아름다운 청소년 교류의 장이 열려 기쁘다”며 “어른들이 잘못 만든 지역감정의 고리를 우리 청소년들이 끊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영주고교 대표 문상원 학생과 부산고교 대표 김희은 학생이 단상 위로 올라와 서로를 환영하는 인사말과 정겨운 포옹을 나눴다.

19일에는 부산의 명소인 광안대교와 누리마루, 아쿠아리움 등을 견학한 후 오전 11시 30분 해산했다.

박지원 기자

# “불교문화 이해와 체험”

## 제11기 삼광문화연수원 개강



삼광문화연수원에서 진행한 다도 수업.

매년 초·중·고사들을 위한 불교문화 체험의 장이 되어온 삼광문화연수원(원장 영제)이 2008년 여름 방학을 맞아 문을 연다. 삼광문화연수원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연수원 승인을 취득해 과정 이수 시, 연수학점 2학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총 10기 수료생 790명을 배출했다.

올해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총 30시간의 일정으로 부산 금강불교대학에서 열린다.

“한국 생활문화의 이해와 체험”을 주제로 전통 교육, 문화, 사회, 건강 등을 불교를 통해 심도 있게 접근한다.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룬 ▲불교문화 개론 ▲불교와 과학 ▲현대 사회의 종교론 ▲전통의 향기, 다도 ▲사찰 건축·조형물·구조물 등 전통문화재의 이해 ▲명상의 이론과 실기 ▲한국 민족사의 바른 이해 ▲생활 속 비교 종교론과 이념 ▲전통문화재 현지답사(경주 남산 일원) ▲영제 스님 특강(삼광사 주지) 등 총 10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현직교사들을 위한 강사진 만큼 교수진 또한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초빙한다. 동국불교대학 구자상 교수, 인도 바라나시 힌두대학교 대학원 고대인도 역사문화고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워싱턴 불교문화

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권기현 교수, 부산여자대학교 아동복지 보육과 교수인 한국 다도협회 정영숙 이사, 동의대학교 철학윤리문화학과 박문현 교수, 일본 동경대 윤종갑 교수, 경남 공무원 연수원 김성홍 교수 등 총 11명의 강사진에게 해당 분야의 깊이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삼광문화연수원장 영제 스님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불교 문화”라며 “초·중·고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

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덕목”이라고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수비는 5만원으로 5일간 중식비, 교재비, 현장학습비, 다도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신청은 삼광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80명만 수강할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 2003년 졸업한 1·2기 졸업생은 재신청할 수 있다. (051)808-0713

박지원 기자(hdbp@hanmail.net)

## 대승불교 조계종 수계 및 건당법회

### 7월 21일 밀양 석산사에서 열려



한국대승불교 조계종은 중정 봉진 스님(가운데)을 법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대승불교 조계종(총무원 장 화봉)은 7월 21일 제2회 수계법회 및 건당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이 위치한 밀양 석산사에서 열린 이날 법회는 한국대승불교 조계종 중정 봉진 스님, 총무원장 화봉 스님, 원로원장 관능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진행됐다. 수계스님 및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가해 여법한 법회를 진행했다.

중정 봉진 스님은 “한국대승불교 조계종이 창종한 지 5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많은 중도들이 모여 종단이 커진 만큼 어느 종단보다도 부처님의 법을 법답게 행하고 부처님의 법을 이치에 맞게 행하는 참다운 수행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는 법문을 했다.

수계의식이 끝난 후에는 입실 건당법회가 이어졌다.

경남남부지사 청운 스님

현대불교 부산지사 광고·구독 문의 (051)632-0064

## 신임 신도회장 취임법회

### 범어사, 7월 21일 부산 롯데호텔서 열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 신도회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7월 21일 오후 6시 30분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사부대중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윤희(64) 신도회장의 취임법회가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자인 스님, 부산광역시 불교진흥회 교육감, 상공회의소 신장택 소장,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신임 신도회장 이윤희씨는 경북 군위읍 출신으로 한국 BBS 부산광역시연맹 회장과 중앙연맹 부총재, (주)수한, (주)대근정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윤희 신도회장은 취임사에서

“삼보의효와 부산지역발전 및 불교신행단체의 화합과 불자의 인격함양을 위해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가지 신도회원실천덕목으로 ▲삼보의효와 범어사 기림수호 ▲신도회 및 부산지역 신행단체들 간의 화합과 친목 ▲차원 높은 불자 육성 ▲불교문화 발전과 미풍양속 선양 등을 다짐했다.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신임 신도회장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신도회기를 증정했다.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다 놓아버리고 다 비워 버리고 버릴 것 없는 맑고 여전한 그 마음이 누구나 간직한 마음의 고향이요 부처님 마음”이라며 이윤희 신도회장의 취임을 격려했다.

박지원 기자

### 구룡사, 8월11일부터 어린이 한문학교 개강

통도사 창원포교당 구룡사(주지 신공)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한문학교를 연다. 8월 11일~9월 1일 매주 월·화요일 각 2시간씩 총 3주간 진행된다. 이번 한문학교에서는 주자의 <소학> 중 어린이에게 교훈적인 부분을 발췌 정리한 <사자소학>을 주교재로 한자와 윤리 도덕에 관해 배우게 된다. 더불어 불자 육성 ▲불교문화 발전과 미풍양속 선양 등을 다짐했다.

주지 신공 스님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우리 어린이들이 한문학교를 찾았다면 한문과 예절교육을 통해 몸도 마음도 몰라보게 속속 자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를 바로 이해하는 지혜로운 어린이들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055)855-6359

박지원 기자

| 불국토를 찾아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 자비심으로 ‘생명 사랑’ 꽃 피워요

“12살 지현이는 친구들과 뛰어들기 좋아하는 청진난민한 5학년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화재로 얼굴, 목, 팔, 손, 등, 다리에 화상 흉터가 생겼고, 몸 뿐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지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지현이의 부모님도 가난한 행편으로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수술 받지 못하던 신지현(12) 환우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6월 17일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린 니르바나 필하

레대장정 ‘일일차집’ ‘난치병 소아암 돕기 자선음악회’ 등 다양한 사회복합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기기증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 등록 총 1175명, 후원할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지현이의 부모님도 가난한 행편으로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9명의 난치병 환우에게 5358만4000원을 지원했다.

부산지역본부장인 원범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사상은 일체



## 장기기증 캠페인 난치병 환우에게 희망

모닉 오케스트라의 ‘제6회 난치성,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 음악회’의 수익금 912만원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를 통해 지원받게 된 것.

올해로 2년째를 맞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불교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장기기증 운동과 의료복지 운동 등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비영리단체다. 이들은 뇌사 시 장기·골수·각막기증, 사후 조직기증 등 장기기증 결연과 환자 치료비의 재정적 지원사업, 헬스관 공여, 헌혈 증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2006년 7월 21일부터 생명나눔 운동을 알리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100원 희망 불씨콘서트’를 시작으로 ‘탁발순

중생을 내 몸 같이 생각하는 동체대비심’이라며 “부산 시민 모두가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실천하는 참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 손으로 하는 부처님 나지 않는다”며 “생명나눔 회원들과 불자 모두가 한 마음이 될 때 고통 없는 부산, 훈훈하고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부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의 구호는 바로 ‘나눔은 습관이며 베풀은 수행입니다’이다.

모든 생명체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고,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가꾸는 이들이 있기에 불국토 부산의 내일은 더욱 아름답다. (051)853-0429 박지원 기자

##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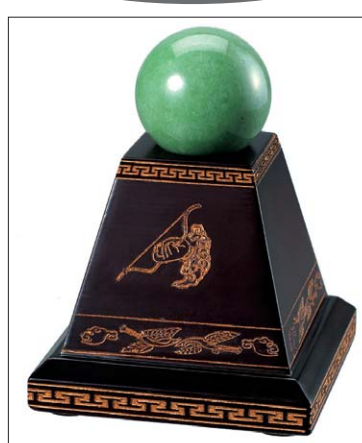
####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지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불신사에서 장사용 왕망 사업변장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기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동협032-12-193445 이상하

####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석당, 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홍,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클럽, 월드컵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국상,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 영험의 구슬



## 보궁여의주

###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릅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 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석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질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다.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 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행생들은 한두문

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관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행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행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동협032-12-193445 이상하

## 평생부자지갑



## 다라니 福 지갑

###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가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돌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에서 인연이 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집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다

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니노, 은나노 처리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축원불공을 해드립니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동협032-12-193445 이상하